

“편지에 담긴 한 사람을 위한 마음”

-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특별전시 「한 사람을 위한 마음, 편지」 개막 -

- 통일부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이하 ‘기념관’)은 개관 8주년을 맞이하여 11월 28일(금) 오후, 경기도 파주시 소재 기념관 1층 특별전시실에서 「한 사람을 위한 마음, 편지」를 주제로 특별전시 개막식을 개최한다.
- 이번 개막식에는 이승신 사회문화협력국장, 이성의 (사)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사장, 납북자 가족 및 파주시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 기념관 개관 이후 여덟 번째 진행되는 이번 특별전시는 3가지 주제의 전시를 통해 납북자와 그 가족들의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 가족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을 선보일 예정이다.
- <머물렀던 마음>에서는 6·25전쟁 이전 납북자가 남긴 편지를 소개한다. 평범한 가장이 가족에게 보낸 안부 편지를 통해 가족을 향한 깊은 사랑과 그리움, 그리고 이들의 일상을 볼 수 있고, 납북된 독립운동가들의 편지를 통해서는 독립에 대한 결의와 희망을 느껴볼 수 있다.
- <닿지 못한 마음>은 납북 이후의 기록으로, 납북자 귀환을 염원하며 가족들이 써 내려간 호소문과 청원서, 그리고 아버지에게 쓴 보낼 수 없는 편지를 전시한다.
- <답장할게요>에서는 납북자 가족들이 받지 못한 편지에 대한 답장을 관람자들이 대신 써보는 공간이 마련된다. 관람자들이 편지쓰기 체험을 통해 오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낸 납북자 가족들의 아픔에 공감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이번 특별전시는 오는 11월 28일(금)부터 2027년 10월까지 진행되며, 2026년 2월부터는 기념관 누리집(www.abductions625.go.kr)에서 가상 현실 영상(VR)을 통해서도 관람할 수 있다.

□ 기념관은 이번 전시를 통해 우리 국민들이 납북자들의 아픔에 함께 공감하는 시간을 갖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의 특별전시를 통해 납북자들이 잊혀 지지 않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붙임 : 「한 사람을 위한 마음, 편지」 홍보물

담당 부서	사회문화협력국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팀	책임자	팀 장	이종현 (031-930-6001)
		담당자	학예연구사	윤소라 (031-930-6011)



2025 - 특별기획전

한 사람을 위한 마음, 편지

28 NOV 2025 OPEN

국립6·25전쟁남북자기념관 1층 특별전시실

북해협만에 날아온 초콜릿 반가운 편지. 편지에는 가아온 글자마다 미안한 마음이 담겨 있다. 지금까지 한국과 한국인들이 겪었던 상실하기 힘든 무당함과 이루 말할 수 없는 억압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앞장선 바가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에 의해 "저대한 광복"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한국 인들은 전쟁 안에 고립되어 외부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이지만 다른 국가들은 한국이 마치 평화롭고 행복한 나라인 것처럼 믿고 있습니다. 저는 조국이 평정할 후 이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는 마음이 간절하여 우리나라 및 중국 동북 지역, 프랑스 등지에서 동지들을 드는 다 기회를 기다리도록 동물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당연한 권리인 자유와 독립, 자애로운 아우갯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자유와 독립을 확실히 되찾아주기 위한 어떠한 희생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국민정부에는 대의를 위해 죽어갔거나 아직도 투옥되어 있는 대국의 수십만 명의 용감한 정신을 불러오는 어려움이, 무라 모스가 추구하고 있는 평등스러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길 촉구합니다. 돌아와 내가 이 세상을 떠나지 않게 나옴과 지난구나. 불조라가 날 때마다 혹시나 내가 돌아오는가 하고 고개를 돌린다. 항일가에서 지나가는 것들과 자용자들을 보고 있는가. 광란한가. 정에서 살고 싶은 평안감을 못 사서 시무룩하고 싶은가. 대문간에 동네 아이들을 꼬여가지고 딱지치기를 하는가. 아가 이런 슬픈 일도 있느냐. 평안과 내 몸 생과 함께 내 상소를 갖고 내가 좋아하는 딸기 아홉 개를 나무상자에 담아서 내 무릎 앞에 놓았다. 아직도 네가 죽은 것 같지 않아. 그 딸기를 가지고 가면 내가 기쁘게 먹을 것만 같았다. 엄마는 네 무릎의 흠을 손으로 파고 용었다. "아 미 오고 마담 푸는데 종근아 어디를 나갔느냐. 같이 놀겠다." 소식이 막힐지 모르니 이 마음 가용기를 합니다. 머리 숙여 절합니다. 만나 뵈지 못해 미안하십니까? 눈 내리는 추운 계절에 푸르네를 모시는 가운데 편지가 좋으시고 온 집안이 두루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근래 유행하는 박병이 적년에 비해 더욱 심한데 묘사가 어떻습니까? 저는 좋은 푸르네를 모시고 그럭저럭 지내고 있습니다. 성적이 거울에는 더욱 괴로운데 다행히 동학 뱀 학우가 와서 머물러 격려함을 면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이 있는 것이 한스라 우니 어느 때에 다시 평정습니까? 편지를 쓰자니 그리워집니다. 예를 갖추지 못하고 편지를 올립니다. 진척 아무 보는 절합니다. 돌아 오니 형도 "제비"가 그리워나 보드 돌아오기 있는 "제비"의 일자는 얼마나 아슬한 사람이겠소. 동지들 지날 때는 머리를 숙이오. 기침형. 3월에는 푸디 만났습다 나는 지금 살 평정하는 중이요. 생활보다도 대제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의논할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니요. 만나서 아무 이야기도 못하고 헤어지는 일이 일다라드르그 만 나기라도 합니다. 말린, 말린, 열서라도 주기 바라오. 4월 28일에 대국 반격시에 도착하여 머무르고 있습니다. 계속하는 동안에도 별일 일기를 바라오. 대국 은 생각보다 덜지 않아 다행입니다. 내내 다들까 걱정했지만 덕분에 건강하게 지내며 시할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곳 소식도 듣고 있습니다. 갈하면 6월 말쯤에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은 비마의 항공으로 가려 합니다. 대국은 일이 많은 나라입니다. 『대양신문』에 자세히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날 '대 자'도 알리지요? 이런 대국 반격에서 그러한 달랑에게, 절정 뒤러지는 데 걸음이 전과 같기만 바라오. 기후나 물식이 잘지 않아서 걱정이오 속해 돌아가기 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물마이 호행에 투수 중인데 과연 친구도 많고 더욱 같은 전 나라입니다. 파키스탄 가라치보다 더욱 더러운 괴로움이나이를 후 에는 스리랑카로 갔다가 싱가포르로 가려하오. 지금부터 '동경도 불경구 관구대장 24 집행일 막' 항공편으로 연락하시오. 궁극한 마음 걸음이 차오르며, 허 나에게 그동안에도 평자 대리고 올 성히 여전히 잘 있길 바라오. 지금은 스리랑카 섬에 있으며, 내일은 싱가포르로 떠날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늘릴 어렸소. 일에 지고 일은 생자가 건설합니다. 이곳도 불자도 불우하고 기후 좋은 곳이고 살고 싶은 곳이나, 그래도 자기 나라가 계속 갈소. 다들이나 당신을 두고 와서 그런지도 모르지요. 9월 말에는 귀가할 예정이요. 그림 잘 있으며, 지금 싱가포르 이 호행에 있습니다. 싱가포르에는 그리 멀지도 않고 살기 좋은 곳 이리다. 일행 가운데 귀국하는 편지에 편지도 보낼소이다만 궁글해서 드 씁니다. 평자는 학교에 잘 가고 정원은 정성껏 가꾸어놓는지요? 남쪽에 화초를 사 가지고 갑니다. 포주로 출발하니 잘 되시오. 지금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비행기를 타고 뉴질랜드에 왔소이다. 세계의 낙원이라고 하는 말 잘 들은 국 가로 말할 수 있는 정지요. 사람들이 과연 신자인 살고, 술도 오후 6시만 팔지 않소. 재미있는 곳이요. 잘 되시오요. 평자 학교에 잘 가지요? 동경에 전파하 리다. 동문 얼마 보시오. 전우자녀가 오라고 해서 화를 받을 만난 듯이 당신과 나도 똑같이 숲속에서 만나자고 하면서 작별을하였으니, 말인 화로도 못 들고 말 한미다 조용히 나누지 못하여 설성한 마음을 헤아릴 수 없소. 그러나 정공의 길에 있는 아내 물이라 성공하기만 빌어 주오. 밤새 물이나 푸고하고 어머니 과 진지함을 인정하옵시며 아이들 건강하고 미쁘게 잘 지내요? 동문의 모습을 보고 싶소. 나는 본계로에서 나와 자동차로 상경하여 회사에 잘 다니니 평미다 드. 출출, 물, 물은 얼마 보시오. 중립권이 만나보고 설성한 작별을 드 하오. 우정하다고 하리오면은 성공의 길이라 그리 생각하시오. 갈 바쁜 것은 시간이라 관용이 많아나트 상경하여 이를 받아 지남구려. 밤사이 신상 평안하고 아버님과 진지문을 인정하시며, 동문이 잘 돌보고 재물이 나날이 더해 갈텐데 차마 그 모습을 뵈릴 수 있디다. 숙제도 잘 있고 누이도 좀 어머신자 글글 하오이다. 나는 우시에 상경했고 누이와 때로는 활활 오후 3시 차로 떠나며, 나는 회사에 잘 다니오. 다들 푸고한 모양이요. 화서 잘 있으면 대전 갈 때에 안성 같 듯하니 그리 밍고 보를 세 같 듯하다고곤 편지 푸치시오. 저고의 한글을 보 낼 때니 멀리 마시오. 푸디 어머니와 내외분께서 만신하시도록 하여주시기 바라오. 출출. 그릴 푸디 동문이 잘 보고 동숙이 는 불려가 나옴것이니 불행이던 단지 가로치여 아불지 않게 하시오. 아버지께 올립니다.



국립6·25전쟁남북자기념관
National Memorial for the Korean War

With All My Heart,
a Letter for One